

제 1993 호

2020년 5월 31일

2020년 표어: “오직 성경의 권능으로 내 영인이 되리라” (행 1:8)



새 소망교회

newhopechurch

담당목사: 안인준
목사: 안인준

영양목사: 송아
영양목사: 노사

평장사: 안진민
평장사: 송아

예 배 순 서

제 1993 호

성령강림주일

5월 31일 2020년

집례 : 안인권 목사 (1부, 2부)
Rev. Joe Ahn (3부)

* 찬 송 ----- Precessional Hymn	고개들어 -----	----- 다같이 Congregation
* 신앙고백 -----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	----- 다같이 Congregation
기 도 ----- Prayer	합심기도 -----	----- 다같이 Congregation
* 봉 헌 ----- Offering		----- 다같이 Congregation
봉헌기도 ----- Offering Prayer		----- 집례자 Presider
성 경 ----- Scripture	1부, 2부: 히 10:35-39 3부: Acts 2:1-6	----- 집례자 Presider
설 교 ----- Sermon	1부, 2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3부: Breathe	----- 안인권 목사 (1부, 2부) Rev. Joe Ahn (3부)
광 고 ----- Announcement		----- 집례자 Presider
* 찬 송 ----- Hymn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	----- 다같이 Congregation
* 축 도 ----- Benediction		----- 안인권 목사 (1부, 2부) Rev. Joe Ahn (3부)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예배성공 · 기도승리 · 말씀순중 · 복음증거

목표 : ① 천배 부흥과 복의 통로가 되자
② 기도자 7000명
③ 전도자 2000명

실천사항 :

- ◎ 매일증거
- ◎ 매일기도
- ◎ 매일순중
- ① 응답(기도)의 통로
- ② 기쁨(성령)의 통로
- ③ 영광(감사)의 통로
- ④ 축복(순중)의 통로
- ⑤ 생명(희생)의 통로

4대 명령 : 예배성공, 기도승리, 말씀순중, 복음증거
3대 사랑 : 하나님사랑, 영혼사랑, 교회사랑
3대 기준 : 하나님영광, 교회유익, 성도축복
3대 의무 : 전도, 봉사, 교육
3대 축복 : 주일, 주의 것, 주의 중

새소망 성도의 확신 : 구원의 확신, 축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새소망 성도의 자세 : 긍정적, 적극적, 도전적
새소망 성도의 정신 : 포용력, 결단력, 인내력

지난주 설교 요약

취할 것과 버릴 것 (살전5:19-22)

선택의 필연성 - 모든 일에 있어서 취할 것과 버릴 것이 있게 된다.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필연적인 일이 선택하는 일이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선택의 결과를 맞이한다. 선택하지 않은 것도 선택한 것이다. 천국과 지옥,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 성공과 실패, 하나님과 우상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선택한 결과는 인생의 끝에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다. 인생의 과정에서도 확인된다. 궤도 수정할 수 있도록 과정과 단계마다 확인되게 하신다.

선택의 상반성 - 모든 선택은 두 가지를 결정한 것이다. 취하는 결정과 버리는 결정을 한 것이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을 버리는 결정을 한 것이다. 악을 취했다면 좋은 것을 버리는 결정을 한 것이다. 축복을 택하면 저주를 버린 것이요 축복을 거부하면 저주를 택한 것이다. 예수를 택하면 지옥을 버린 것이지만 예수를 거부하면 지옥을 택한 것이다. 하나님을 택하면 생명을 택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면 생명을 거부한 것이다.

선택의 운명성 - 인생의 선택은 남이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남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남의 선택이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다 해도 선택한 결과는 나의 몫이다. 환경적 요인과 상황을 핑계하지만 선택은 내가 한 것이다. 결정된 결과는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

선택의 영구성 - 인생의 과정에서 연속되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일회성으로 간과하기 쉽다. 일회성의 선택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선택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영원하다. 선악과 사건은 일회적, 순간적이었으나 결과는 영원히 지속되고 있다.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일회성으로 끝나기를 바라지만 결과의 지속성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다. 결과의 지속성을 간과하는 실수가 빈번한 것은 기대하는 것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선택 결과의 의외성 - 선한 것을 선택 했으나 악한 결과로 나타나고 고통을 선택했으나 행복한 결과로 나타나는 의외의 결과가 있을 수 있다.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다른 결과에 부딪혀 당황할 때가 있다. 기대와 다른 결과에 대하여 그 원인과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신이 선택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준이 잘못 되었을 수밖에 없다.

기준의 오류 - 기준의 오류는 선택의 오류를 가져오고 선택의 오류는 기대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 기대하지 않은 결과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할 때 환경이나 상황, 남들에게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문제는 그 원인조차 본인이 확인하고 점검 했어야 하는 것이다. 오류가 있을 수가 없다고 확신 했어도 결과가 무엇을 말해 주고 있는가? 거기에 대하여 솔직해야 한다. 상황과 환경의 치명적인 함정까지도 본인의 책임인 것이다.

두가지 기준 - 기준의 결정적 오류는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의 차이에 있다. 사람과 사람의 기준의 차이보다 하나님과의 기준 차이가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기준은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다. 영적 기준과 육적 기준 차이는 생명과 사망의 차이가 된다. 두 가지 기준은 정반대의 기준이기 때문에 절충이나 합의의 여지가 전혀 없다.(롬8:6-7)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영적 기준의 사람이 있고 육적 기준을 가진 사람이 있다.

기도와 기준 - 기도는 통상적으로 문제 해결에 목적을 둔다. 그러나 이보다 선결해야 할 것이 있다. 문제 해결은 원인 해결이 전제되어 있다. 기도를 통해 해결보다 원인 파악이 우선 되어야 한다. 기도보다 기준이 중요한 이유가 이 때문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거절하신 적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그리진 길로 가는 것을 막는 실제적인 조치와 함께 기도하라는 것이다. 행동과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어그리진 길로 가는 것을 방지하는 기도는 거절하시는 것이다.

선택의 결론 - 두 가지 선택이 있게 된다. 하나님의 기준에 의한 선택과 사람의 기준에 의한 선택이 있다.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게 된다. 궁극적인 결과는 하나를 잃고 하나를 얻는 것이 아니다. 다 얻든지 다 잃든지이다. 결국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다른 것을 선택하느냐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도 모든 것도 잃는 선택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도 모든 것도 얻는 선택이다.

선택의 자유 - 결정하기 전에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 결정된 후에는 선택의 자유가 없다. 현재는 과거의 선택의 결과이다. 선택의 기회가 지나간 과거의 결과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는 미래를 위한 결정의 순간이다.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 순간이다. 현재 결정된 것은 미래에 피할 수 없이 거두게 된다. 현재(오늘)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과거의 결과이며 미래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선택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영원하다.

교회 소식

- ◎ 첫열매새벽예배(6월 1일-6월 3일)로 하나님께 영광돌리며 창고가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 ◎ 오순절 성령강림 부흥회를 통하여 성령충만, 능력충만, 믿음충만 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5월 22일(금)-5월 31일(주일) 오후 8시
- ◎ 에콰도르 코로나구제선교헌금에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 ◎ 2020년 여름 에콰도르 단기선교 신청을 받습니다. (문의: 송진영목사)
기간: 8월 17일(월)-8월 22일(토)

1. 새생명공부: 주일 오전 9시 30분 (신청: 황은미집사)
2. 5월 청소: 믿음구역, 감사구역 (6월 청소: 은혜구역, 화평구역)
3. 토요(이번주) 중보기도 담당: 능력②구역

[교우소식: 졸업]

- ◎ 청년부: 김요셉, 송민희, 이영국, Alvin Chun, Danny Ahn, Esther Jo, Samuel Nam
- ◎ 학생부: 신승리, 이슬기, 이영웅, 이진

<5월 및 6월 행사>

1. 오순절 성령강림 부흥회: 5월 22일(금)-5월 31일(주일) 오후 8시
2. 6월 첫열매새벽예배: 6월 1일(월)-6월 3일(수)

<새소망교회 Youtube Channel>

- ◎ Youtube에서 "New Hope Church TV" 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 ◎ 온라인 예배: www.newhope.us/online 에서 예배가 실시간 방송됩니다.
매일 새벽예배(5:30AM), 금요일예배(8:00PM), 주일예배(10:30AM, 1:30PM)

<담임목사님 소개영상>

- ◎ Youtube에서 "C채널 방송 안인권목사" 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노방전도 일정표

<input type="checkbox"/> 엘리콧시티 롯데	<input type="checkbox"/> 엘리콧시티 한아름	<input type="checkbox"/> 엘리콧시티 투레주르	<input type="checkbox"/> 케이튼스빌 한아름
첫째주: 믿음 ① 구역 믿음 ② 구역	첫째주: 충성 ① 구역 충성 ② 구역	첫째주: 사랑 ① 구역 사랑 ② 구역	첫째주: 은혜 ① 구역 은혜 ② 구역
셋째주: 감사 ① 구역 기쁨구역	셋째주: 능력 ① 구역 능력 ② 구역	셋째주: 승리 ① 구역 승리 ② 구역	셋째주: 화평 ① 구역 화평 ② 구역

이번주 구역 예배 장소

기쁨 구역 : *가정예배	
믿음 ① 구역 : *가정예배	감사 ① 구역 : *가정예배
믿음 ② 구역 : *가정예배	감사 ② 구역 : *가정예배
은혜 ① 구역 : *가정예배	화평 ① 구역 : *가정예배
은혜 ② 구역 : *가정예배	화평 ② 구역 : *가정예배
사랑 ① 구역 : *가정예배	충성 ① 구역 : *가정예배
사랑 ② 구역 : *가정예배	충성 ② 구역 : *가정예배
능력 ① 구역 : *가정예배	승리 ① 구역 : *가정예배
능력 ② 구역 : *가정예배	승리 ② 구역 : *가정예배

예배와 모임 시간

주일예배

- | | | |
|-----------------|--|--|
| 1부: 오전 8:00 | <input type="checkbox"/> 새벽예배: 오전 5:30 | <input type="checkbox"/> 청년부예배: 오후 6:00 (토) |
| 2부: 오전 10:30 | <input type="checkbox"/> 금요찬양: 오후 8:00 | <input type="checkbox"/> 학생부예배: 오후 1:30 (토) |
| 3부: 오후 1:30(영어) | <input type="checkbox"/> 구역예배: 오후 7:30 | <input type="checkbox"/> 주일학교: 오전 10:30 (주일) |

목회 칼럼

자신감이 빈자리는 두려움이 채운다

"두려움은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잠재력이 고개드는 것을 방해한다."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자신의 성공 비결로 자신감을 꼽는 사람이 많다. 그만큼 성공으로 통하는 가장 중요한 자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신감이다. 이것이 있어야 웅대한 목표를 세우고,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고서 꾸준히 그 목표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감을 상실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자신감을 잃은 자리에 두려움이 밀고 들어온다. 두려움이란 어둠 속에 엎드려서 환할 때는 보이지 않다가 나중에 빛이 사라지고 나서야 나타나는 악마와 같이, 자신감이 충만할 때는 조용히 숨어 있다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장마전선이 검은 구름을 몰고 오듯이 두려움이 마음에 엄습한다.

성공자는 이러한 자신감과 두려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고 자신이 쌓은 지식과 경험으로 이 두려움이 설 자리를 허용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막연한 망용이 자신감과 같은 것이 아닌 사실이다. 자신감이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젊은 사람들이 자신감을 얻고 싶다면 더 열심히 인생을 배우고 지식을 연마해야 한다. 충분한 훈련과 경험이 따라주지 아니하면 자신감 대신 초조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그런 상태로는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두려움 때문에 실패하지만 실패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다. 물론이다. 두려움은 실패의 그림자처럼 따라올 것이다. 하지만 실패 뒤에 따라오는 두려움에 붙잡혀 도전하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 실패가 과거의 사건으로만 끝나지는 않는다. 앞으로도 실패할 수 있다. 새로운 일을 도전해야만 성공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 새로운 기회는 성공의 기회가 되는 동시에 실패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실패를 각오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두려움 때문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 실패해도 두려움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성공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성공의 기회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으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공을 놓친다. 두려움에 붙잡혀 끌려 다니면 인생의 방향을 잃고 절망 속을 방황하다 세월을 낭비하게 된다. "콩코드의 철학자'로 불리는 위대한 사상가 랠프 W. 에머슨(Ralph W. Emerson)은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과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나약한 사람의 눈에는 잘 가꾸어진 농장과 집만 보이지만, 강인한 사람의 눈에는 허허벌판 속에서도 미래의 집과 농장이 보인다. 그의 눈은 마치 태양이 구름을 몰아내듯 빠른 속도로 집을 지어낸다." 대학을 졸업한 '로저스'는 회사에 취직하여 광고기획자로 일하게 되었다. 그는 뛰어난 전공 지식을 갖췄지만, 막상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자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생겼다.

그는 고객을 만날 때마다 쩔쩔매면서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하여 지나칠 정도로 많이 신경을 쏟았다. 까다로운 고객이 자신의 의견에 대해 반대라도 하면 온몸이 긴장으로 덜덜 떨렸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로저스는 갈수록 자신감을 잃어갔고 업무를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그는 타고난 성향이 사교적이지 못했다. 이러한 성향이 그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장의 무심한 표정 하나에도 그는 이런저런 부정적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그의 소심함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명문대학 출신이라는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업무 실적은 사람들의 기대치를 한참이나 밑돌았다. 결국 사장이 그의 해고를 진지하게 고민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제야 로저스는 자신의 마음 자체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 불현듯 재학시절 그의 지도교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두려움은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잠재력이 고개드는 것을 방해한다." 인생에서 그를 가로막던 것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바로 마음속의 두려움 그 자체였던 것이다. 그로부터 얼마 후, 로저스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 사장은 마지막 기회라며 중요한 고객과의 미팅을 맡겼고, 로저스는 드디어 잘 해냈다. 기대 이상의 능력을 발휘한 것이다. 말투와 행동부터 내면에 당당함이 충만했다. 그 후 로저스는 훌륭한 실적을 쌓아가며 승승장구했다. 회사에서 단연 톱 클래스의 멤버로서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 자신감을 한 사람의 운명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어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 "두려움은 의지를 가둔 감옥이다. 마음속에 들어와 조용히 숨어 있던 두려움은 미신을 불러오고, 미신은 날카로운 단검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죽인다." 누구나 성공을 꿈꾸는 동시에, 이루기까지의 과정때문에 또는 혹시 모를 실패의 가능성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다. 만일 두려움이 느껴진다면 탄탄한 경험과 공부를 통해 준비를 강화하고 무엇보다 믿음을 점검하고 강화시켜 두려움을 축출시켜야 한다.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 두려움은 나가라고 해서 나가지 않는다. 믿음을 채우면 자동으로 밀려 나간다. 물을 채우면 컵속의 공기는 저절로 밀려 나가는 것과 같은 이치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POWER LINE이다. 이 POWER LINE이 연결되면 믿음이 채워진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한 실패는 불가능하다.